

효과적인 해외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군사통합 방향 연구 : 독일 군사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연 한세대학교

논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군의 역할 또한 평시의 국민 보호 및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한 행위자로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화유지군의 경우 평화의 수호자로서 세계 각 지역의 분쟁과 내전이 종식된 지역에 파견되어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이 가지고 있는 평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는 최근 파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로 인해 재평가 되고 있다. 특히 평화유지군 파병국가 가운데 내전 및 분쟁 이후 군사통합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임무지에서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통해 군사통합으로 새로이 구성된 군대 또한 국외 파병시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긍정적인 이미 지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념갈 등 완화, 교차배치정책, 전범 및 인권 탄압 범죄 가담자에 대한 통합 배제가 군사통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주제어 : 군사통합, 평화유지군, 독일 통일, 이념 교육, 전범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전쟁에 대한 통계적 집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2000년부터 내전과 테러 형태의 전쟁이 국가간 전쟁 발생 건수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 비전통적 전쟁은 전통적 전쟁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UCDP 2020). 이러한 전쟁 형태의 변화는 군의 역할을 비전통적 폭력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국가 방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맹국 및 국제 기구 등의 요청이 있을시 해외파병을 통해서 군사역량을 강화하거나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는 평화 수호자의 역할로 변화시켰다.

대표적 해외 파병의 형태인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이 종식된 국가 및 지역에서 내전 종식, 지역 난민들의 안전한 귀국 및 국가 재건 등을 위해 분쟁 관리, 민간인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 한다. 평화유지군은 군사 조직 임에도 198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민간인 보호임무를 주요 활동으로 지정하면서 분쟁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평화유지군의 비행행위 및 위법행위들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는 국가들은 내전 및 분쟁이후 자력으로 국내 안정화가 불가능하여 국외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무지역에서 민간인 보호를 수행하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평화유지군들에 의해 발생하는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평화유지군의 정체성에도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게다가 파병지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들의 문제는 해외 파병시 자국군의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민간인 보호에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성폭력(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및 민간인 보호(protection of civilians)요청 불응 등의 문제는 유엔이 ‘암적인 문제(a cancer in our system)’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을 나타낸다(Ban Ki-moon 2015).

평화유지군들의 비인도적 행위 문제는 평화협정을 통해 군사통합이 이뤄진 국가의 군대에 보다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강지연·최현진 2017; 강지연 2019). 2020년 기준 평화유지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119개국이며, 평화협정에 의해 군사통합 경험이 있는 국가는 총 22개국이다(UN peacekeeping 2020; Pettersson & Magnus 2020). 평화협정 이후 군사통합이 이뤄진 파병국이 전체 평화유지임무 국가의 1/5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혐의의 경우 7배에 달하는 수치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임무가 수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평화유지군이 파병된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기도 했다(UN Conduct and discipline Unit 2020). <표 1>에서와 같이 군사통합이 이뤄진 국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독일의 임무지인 Gao town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파병이후 오히려 민간인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군사통합 유무와 민간인 사망자수 증감

임무명	국가명	파병기간	파병지역	파병전 민간인 사망자 수	파병후 민간인 사망자 수	군사통합 유무
MONUSCO	네팔	2009 ~2017	Beni town	0명	364명	통합
	볼리비아	2002 ~2010	Kindu town	177명	0명	미통합
MINUSCA	부룬디	2014 ~2017	Sibut town	3명	57명	통합
	모리타니	2016 ~2017	Bambari town	81명	28명	미통합
MINUSMA	세네갈	2014 ~2015	Kidal town	2명	4명	통합
	토고	2014 ~2017	Gossi town	0명	1명	미통합
	독일	2013 ~2019	Gao town	7명	0명	통합

출처: UN peacekeeping(2020); Pettersson & Magnus(2020), 필자 재구성
 주) 평화유지군임무지도(Mission Map)을 통해 파병지역이 확인된 국가 중 일 년 이상 임무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임무만 기술.

군사통합을 통해 평화 협정 이후 새로운 형태의 군을 형성하는 국가들은 다른 여타의 국가들보다 기존 군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파병시 적대 세력과의 교전 결과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통합된 군의 노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군사통합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정상국가의 군대가 아닌 분쟁이나 내전 이후 평화협정에 의해 통합된 군대들 또한 성공적인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 하고자 한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 동독군과 서독군의 통합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군사통합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이 군사통합이후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군으로써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독일이 평화수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 중 성범죄 발생과 민간인 보호 임무 등에서 가시적인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적인 해외파병의 확대를 통해 과거 부정적 군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하게 될 군사통합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는 성공적인 군사통합 모델의 제시를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 '세계 평화의 군'으로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 또한 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군사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군의 이미지 변화 및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과정에 대해 물리적 통합과 이념적 통합으로 나뉘어 살펴보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통일 독일의 평화유지군 활동상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군사통합 과정 중에 이뤄진 특징들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으며, 통합된 군의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독일이 실행했던 군사통합의 형태가 현 시대 군의 역할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세계 평화 수호의 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통합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군사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

현대 사회에서 이념적, 정치적, 민족적 갈등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특히 국가간 분쟁이후 적대적이거나 상반되는 세력과의 통합에서 군사통합은 정치적 통합보다 이념적 통합 측면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사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사통합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군사통합의 위험성과 군사통합의 긍정성에 따라 분류된다. 군사통합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군사통합이 표면적 평화에만 기여하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단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평화협정 과정에서의 차이에 따라 군사통합이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Kamais(2019)는 군사통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접근 수단이라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화 달성에는 불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평화라는 결과만을 위해 군사통합을 서두르게 될 경우 통합의 기본적인 목적, 통합을 위한 세부 과정의 부족, 적으로 간주되는 무장단체들에게 주어지는 기득권 문제 등이 장기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군인들의 급속한 승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등이 평화 협정을 붕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Kamais는 통합 과정에서 내외부의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과 더불어 적으로 간주되었던 조직을 통합 이후 통일된 국가에서 하나의 안보 구조로 인정한다면 장기적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Warner(2018) 또한 Kamais와 동일하게 군사통합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Warner는 전쟁 이후 반정부 무장 단체를 정부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장단체들을 무시한 채로 국내의 군사 세력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사통합의 위험성을 찾고 있다. 군사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장 세력의 존폐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무장 세력들의 의견을 정치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까지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평화라는 결과만을 위해 선택한 무장 세력의 의견 수렴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은 Kamais의 의견과 동일하게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 세력들과의 통합은 군사통합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합 또한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넓은 차원의 안보 개혁은 결과적으로 장기적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Bussmann(2019) 또한 군사통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평화협정 과정 중 군사통합 내용에서 군의 감축(정부군의 감축) 부분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군의 감축은 평화 과정으로 가기 위한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긴장 상황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은 평화 협정이후 내전의 재발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 1945년부터 2006년까지 126개의 내전 종식 국가 가운데 40%의 국가가 군사통합이 이뤄진 것과 같이 군사통합은 내전 또는 분쟁의 종식이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단이다(Hartzell 2014). 그리고 내전과 분쟁 등 전쟁 이후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통합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모든 연구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군사통합이 평화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군사통합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모두 군사통합의 긍정적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서로 반대되는 집단이지만 두 집단이

서로 권력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평화구축 공약에 신뢰를 주고, 집단 안보가 가지는 공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Krebs and Roy 2015).

군사통합의 부정적 측면의 연구들에 비해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은 군사통합과정의 목표를 군 정체성 형성에 둬으로써 기존의 부정적인 연구들이 우려하는 내전의 재발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곽은경(2018)은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사이의 집단 정체성을 일체화시킴으로서 집단 간 이질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흡수 통합이 아닌 동독군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이해하면서 서독군의 정체성을 동독군에게 전이하는 과정을 통해 동독군의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곽은경은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집단정체성 개념을 군에도 적용하여 본인이 속한 군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법현(2017) 또한 곽은경과 동일하게 군사통합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통일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이념교육이 중요하며, 독일은 군사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념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념교육을 통해 내적 통합을 달성했다고 보았다. 분쟁 또는 내전으로 인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두 군대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념 갈등을 군사통합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념교육을 통한 통합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병력, 장비 등의 외적통합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독일 통일을 통해 군사통합의 긍정적인 측면을 논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과 관련된 대다수의 논문들은 군사통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물론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만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및 결정과 통일이후 평화유지군 활동 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 국제 사회에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군으로서의 역할 및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내전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향후 바람직한 군사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Ⅲ. 동독과 서독의 군사통합과 특징

1. 동독과 서독의 군사통합

독일의 통일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것과 같이 독일의 군사적 통합 또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없던 상황 하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동독군과 서독군의 통합은 무력과 강압 없는 평화로운 통합이라는 기본 원칙이 세워졌으며, 이 원칙 하에서 동독군의 즉각적 해체와 서독군으로의 통합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³⁾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은 국제적 협력 요인과 국내적 통합인 물리적 통합과 이념적 통합에 의해 이뤄졌다. 국제적 협력은 동독군과 서독군의 통합이 가능했던 배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동독과 서독은 2+4(동독/서독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회담을 통해 독일군 감축 결정 및 NATO 귀속 허용 등을 결정 하게 된다.

동독과 서독은 서로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군사통합이 이뤄졌다(이승철 2013). 독일의 군사통합은 군 병력과 무기 통합으로 구성되는 물리적 통합과 동과 서가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이념을 통합하는 이념적 통합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은 국제적 협력 요인보다 국내적 통합 요인을 군사통합 과정 중 주요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독일의 군사통합과정 중 나타나는 국내적 통합 과정

3) 동독과 서독의 군사통합은 결과적으로 통합된 군의 숫자만 보더라도 동독은 전체 통합된 군의 약13%만이 동독군으로 이뤄졌다.

이 국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적대적 세력에 대한 통제 및 통합이 이뤄지는 부분이며, 각 국가만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물리적 통합

독일의 군사통합 중 국내적 요인은 크게 군 병력과 군사무기의 통합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두 국가의 공평한 군사통합이라기 보다는 동독군의 해체 또는 동독군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의 내용이었다. 동독군은 통일과 동시에 모든 활동이 중지 되었으며, 해체된 동독군은 병력의 일부가 서독군으로 흡수되었다. 흡수된 약 2만 명의 동독군은 2년간 서독군에 임시 임용 되었고, 모든 훈련과 군사력은 서독군 중심으로 운용되었다(Schönbohm 1992; 이승철 2013 재인용). 2만 명의 동독군을 약 2년간 서독군에 임시 임용한다는 내용은 군사통합 당시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에서 동독군을 편입하는데 있어 호의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의한 것이었다; 편입된 동독군은 2년간의 임시 임용 이후 심사 절차에 따라 추후 거취가 정해지게 되었다(이승철 2013).

<표 2> 통일 이전 독일의 군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세부내용				
	육군	해군	공군	국경수비대	계
서독	345,000	39,000	111,000	20,000	515,000
동독	120,000	16,000	37,000	47,000	220,000

출처: 송병록(2007), 필자 재구성

통일된 독일의 군 병력은 2+4의 합의에 따라 37만 명을 유지 하는 것에 합의 하였는데,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의 군 병력이 통합 73만 5천 명임을 가만하면 수적으로 매우 큰 조직 개편이었다. 위 <표 2>에

따르면 통일 이전 동독의 군 병력이 육해군 통합 22만 명이었음에도 총 병력의 3/4이 통일로 인해 전역을 하게 된 것에 반해, 서독은 전체 병력의 약 2/5만이 감축되었다.

특히, 군사 개편을 하는데 있어 동독 군인의 편입과 전역의 범위를 자세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전역대상자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해체되어야 할 대상과 바로 해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령급 이상, 55세 이상의 군인과 정치장교는 강제 전역하였으며, 병역의무 이후 대학입학 특전이 있던 젊은 하사관들은 자진 전역하였다(송병록 2007).

군사통합이후 흡수된 동독 장교들은 서독 장교들과의 균형을 위해 계급 강등 조치가 이뤄 졌다. 일반병사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는 서독 군인들과의 동일한 급여 지급 및 전역금과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전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했으며, 잔류한 군인들에게는 이념적 통합을 위한 정훈교육이 실시되었다(주독대사관 1992); 군사통합으로 인해 동독군의 실직률은 30%에 달했으며, 전역한 군인들(특히 2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 취업 지원 및 3,000~7,000마르크에 달하는 퇴직금이 일시 지급되었다(배안석 2007 재인용). 1995년에는 군사통합 이후 동독 출신 장교가 처음으로 대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367명의 동독 출신 장교들이 서독으로 전입 오게 된다(통일부 2013).

군 병력의 통합 및 해체에 이어 동독군의 무기와 장비의 인수 및 폐기 또한 이뤄졌다. 무기 체계의 통합 및 해체는 국내 규정에 더불어 유럽재래식 무기 감축조약까지 고려하여 이뤄졌으며 장기간 사용할 것,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 폐기할 것으로 범주가 나누어 진행되었다(통일부 2013). 동독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는 아래 <표 3>과 같이 인수, 감축 및 처리 대상으로 나누어 고려되었는데, 인수된 무기 가운데 사용 가능한 무기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표 3> 동독군 인수 무기 및 감축 및 처리 대상 무기

구분	인수 대상	감축 및 처리 대상	
	세부내용	감축	처리*
전투 장비	- 전차 2,300여대 - 전투장갑차, 특수장갑차 9,000대 - 화포 및 대공포 5,000여문	- 전차 2,566대 - 장갑차 4,257대 - 화포 1,632문	- 전차 2,619대 - 장갑차 5,940대 - 기타 장갑차 3,381대 - 화포 2,161대
소화기	- 120만 여정		
항공기	- 전투기 368대 - 훈련기 59대 - 헬기 273대	- 전투기 140대	- 전투기 343대 - 공격형 헬기 47대 - 기타헬기 113대 - 훈련기 50대
함정	- 전투함 82척 - 기타 110척		
차량	- 화물차 약 85,000여대		
탄약	- 약 29,500톤		
액체 연료	- 약 4,500톤 (로켓추진 연료 포함)		

출처: 통일부(2013), 필자 재구성.

주) 통일조약에 따른 처리, 제3국 제공 및 판매, 박물관 제공 및 판매, VEBEG (연방장비 및 물자처리 회사)를 통한 판매, 산업체 파기.

2) 이념적 통합

물리적 통합이 외부 세력과의 합의와 국내 및 국제 조약에 따른 기준 아래 이뤄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이었다면, 이념적 통합은 물리적 통합에 비해 보다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으로 이뤄졌다.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동독군들은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법을 벗어난 횡포, 비밀주의 등의 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교육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배안석 2007; 이승철 2013). 장교들은 일반병사들에 비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당에 대한 무비판적 충성도

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무 근속 년수가 길수록 공산독재에 대한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물리적 통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대령급 이상 및 정치장교에 대한 즉각적인 전역의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동독군은 부사관과 병의 비율이 1:1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치적 이유만으로 부사관급들의 전면적인 전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이들에 대한 이념적 재교육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배안석 2007).

군사통합이후의 이념교육은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인수단계, 개편단계, 정착단계까지 총 4단계에 따라 시행되었다. 아래 <표 4>에 따르면 이념교육은 통일에 의해 진행되는 군사통합에 대한 상황인지 교육을 시작으로 통합 이후 동독에서 편입된 조건부 기한제 군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동독 군인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통일시작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념 교육은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념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내적 통합 방법이라 하겠다.

<표 4> 단계별 군사통합과정에 따른 이념교육 내용

단계	시기	군사통합과정	교육 내용
준비 단계	1990.07 ~1990.08	-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 - 군사통합을 위한 서독군 연락단 250여명 동독 파견	- 군사통합에 대한 상황인지 교육
인수 단계	1990.08 ~1990.10	- 동부사령부에 육군실무요원 850명 편성 - 동독 주요직위자 및 정치군인 전역 - 국경수비대 해체 - 동독인민군 지휘권 인수	- 새로운 연방군 형성에 따른 기존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인식 전환
개편 단계	1990.10 ~1991.03	- 부대개편 - 교육지원팀 운용 - 동독인민군 편입인원에 대한 조기 동화 교육	-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군으로의 동화 교육

정착 단계	1991.04	- 동독군의 편입과 재교육 - 독일연방군 축소	- 조건부 기한제 군인 등에 대한 지속적 재교육
-------	---------	------------------------------	----------------------------

출처: 김법헌(2017); 배안석(2007), 필자 재구성.

2.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특징

1) 권력 공유로써의 군사통합

일반적으로 내전이나 분쟁이후 국가 내 평화의 정착을 위해 서로 다른 세력 사이의 권력 공유(power sharing)가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 공유는 위험사회의 경쟁 파벌을 권력 안에 포함시키면서 무력충돌을 저지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사용된다(Hartzell and Hoddies 2003; Mattes and Savun 2009; Wucherpfenning 2013).

Lijphart에 의해 주장된 초기의 권력 공유는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분쟁중인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Lijphart 2002). 그렇기 때문에 권력 공유의 개념은 대립되는 집단을 포용하는 민주주의 개념과 연결되고, 서로 다른 이해 집단을 전후 또는 분열된 사회에서 하나의 체제 안에 편입시켜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Carvalho 2016; Lijphart 2008).

군사통합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들이 하나의 정치적 대표성 형성을 통해 평화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권력 공유(power sharing) 과정 중의 하나이며, 권력 공유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의 분쟁 중 대연정 수립을 위한 포괄적 공유이다. 특히 민주적 모델은 다른 민족 집단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 집단이 평화적으로 정치에 참여가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갈등 체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이해집단의 권력 공유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인다(Lijphart 2008).

권력 공유 과정에서 군사통합은 정치 및 경제적 공유보다 상호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군 병력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 이후에는 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최소화로 정비되는 경우

가 일반적이거나 평화협정을 통한 분쟁 종식 이후에는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군 병력 확대가 발생한다. 이는 비용적 측면을 확대해서라도 반군 또는 적대적 세력이었던 군 병력을 새로운 군 조직에 편입 시킨다는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적대 세력의 새로운 군 조직 편입은 통합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쿠데타 가능성 예방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Jarstad and Nilsson 2008; Bell eds 2018).

군사통합은 내전 및 분쟁이 종식된 이후 평화라는 수단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임과 동시에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대 세력의 지위를 유지해주거나 과거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화유지에 대한 위험 측면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Bell eds. 2018).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군사통합은 권력 공유를 실행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군사통합은 분쟁 종식 또는 분쟁 이후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인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군사통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위한 무력적 충돌 없이도 국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Bell eds. 2018).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흡수되는 쪽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통합을 위한 평화 협정(peace agreement)는 과정 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그 결과 흡수되는 단체들에게 통합 이후 그들의 지위를 통합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거나, 과거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상의 수단으로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Bell eds. 2018).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평화 협정이후 통합된 집단들이 더 이상의 분열을 이루지 않는다는 약속의 대가임과 동시에 흡수되는 측의 지지자들 특히 군사 지지자들을 관리 하는 측면에서 지급된다. 즉 전쟁 중 민간인 학살 등에 가담한 주요 고위 전범들에 대한 처벌을 이행하지 않거나 새로운 통합 정부로 편입시키는 협상이 이뤄지고, 전역 군인들에 대해 새로운 지위를 제공하거나, 전쟁 중 범죄 행위에 대

한 면책 등의 추가 조치들이 이뤄지게 된다(Gates eds. 2016). 결과적으로 분쟁이나 내전 이후 평화를 위해 이행되는 권력 공유 가운데 군사통합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과 위험정도가 정치 및 경제적 통합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Jarstad and Nilsson 2008).

2) 독일 군사통합의 특징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국가의 정치·경제·군사 등을 통합하는 과정은 여타 다른 평화협정 체결 국가들과 동일하게 평화라는 결과가 전제되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통합하는 경우 소수의 반대 입장을 가진 적대 세력들에 의해 물리적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은 군 복무기간이 길고 고위급일수록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1:1 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충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군사통합에 있어 독일은 서로 다른 이념적·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동독군을 통합하는데 있어 단순한 흡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동독군의 정체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을 택했다(통일부 2013). 즉, 여타 군사통합을 이룬 국가들과는 달리 시간을 두고 이념적 교육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가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독 및 서독 군인들에게 실시된 교육은 아래 <표 5>와 같이 크게 군사교육과 정치교육으로 나뉜다. 군사교육과 정치교육 모두 변화되는 체제 아래에서의 정신교육이지만 군사교육은 군인으로서의 실제적 사용 기술에 대한 교육, 정치교육은 통일 이후 변화된 체제하에서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다.

<표 5> 동독 및 서독 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 과정에서의 교육

군사교육	정치교육
- 동독군 초급 장교의 서독 내부중앙 지도부(Zentrum Innere Führung) 입교를 통한 정신교육(1990년 7월)	- 동독군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가치, 시장경제체제, 다원주의 등 교육

- 동독군 장교에 대한 부대단위 정기 과정 설정 및 교육 실시(1990년 10월)*	- 시민군(Bürger in Uniform)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	-------------------------------------

출처: 곽은경(2018), 필자 재구성.

주) 동독군 관리에 필요한 동독군 장교 350명(탄약관리 또는 시설관리 장교), 1,200명의 중대장, 선임하사관 등이 대상(유명기 1996).

군사통합 과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정체성이 바탕이 되어 이뤄진 것으로 동독 장병들의 저항 없이 서독군으로 흡수되어 연방군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곽은경 2018). 즉, 독일은 동독과 서독 군인들에게 가치관 정립을 위한 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던 이념갈등을 완화 시킨 것이다(배안석 2007).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서 실제 배치에 있어서도 동독과 서독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일체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였다. 1990년에는 동독과 서독 의무병들을 서로 교환하여 훈련하기도 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동부군 사령부에 재배치하였다(이명환 2010). 교차배치정책 즉, 상호 징집을 통해서 통합된 군 내에서 생겨날 수 있는 출신 및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격차를 줄였다. 이는 기존 타 국가들이 군사통합 과정에서 지역관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교차배치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와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장 중요하고 독일만의 차별성 있는 군사통합의 특성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군사통합시 전문적 지식 부족, 자질, 인원감축 등의 일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동독시절 인도주의나 법치주의에 어긋난 행위, 인권탄압 가담, 국가보위부 활동 등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에 대해 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박용한 2017). 이는 독일이 군사통합을 실행하는데 있어 여타 군사통합 국가들과 가장 특징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서독의 정체성이 스스로의 개발에 대한 목표 의식을 중점으로 삼았다면 동독의 정체성은 사회주의의 전형으로 위계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미덕으로 삼고 있었다(형성우·이승철·이영근 2015). 뿐만 아니라 독일은 통일 이후 과거 전범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 된 형태를 띠었던 통일 독일에서 군의 정체성은 과거사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통일된 독일의 연합군은 부정적 과거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미지의 군 조직 형성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인권 탄압에 관련된 군인들의 배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형성우·이승철·이영근 2015).

IV. 독일의 통일이후 해외파병 활동

독일은 군사적 평화활동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⁴⁾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자발적 변화를 통한 외부 활동보다 미국과 유엔 등의 외부 세력에 의해 변화를 시작했다. 특히, 독일의 평화유지군 활동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현재도 여전히 최소한의 범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8월 기준 총 8만 1,651명의 평화유지군 중 독일은 총 8개 임무에 504명의 인원만을 파병하고 있다(UN Peacekeeping 2020). 그러나 독일은 통일 이후 과거 나치 독일, 전범으로서의 독일이 가지고 있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형태의 군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의 군사력 사용은 학술적 및 국민의 인식 모두에서 평화주의에 입각해 거부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해외파병 활동에서도 비전투적 분야에서만 군사 활동이 용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와 같은 인식에 따른 행동은 독일의 해외파병이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적 기여(token contributions)’로만 여겨지게 하였으며, 심지어 해외파병군

4) 물론 독일의 해외 파병 등은 냉전 기간에도 이뤄졌으나 본격적인 지상군 투입, 대규모 병력 등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볼 때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을 ‘제복을 입은 원조 수행 노동자(aid worker in uniform)’로 인식하게 만들었다(Jakobsen 2013). 이는 독일연방군(The Bundeswehr)이 추구하는 확장적 개념에 따라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 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군사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적극적 개입보다는 냉전기간 동안의 민간인 의료 지원 및 병참기구 지원 등의 순수 인도주의 임무와 더불어 2000년 초반까지도 평화유지군 파병 인원이 40명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00; Kroops 2016). 물론 통일 독일이 이와 같은 소극적 해외파병만 이어온 것은 아니다.

1994년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파병을 통해 해외 파병 기회 확대와 지상군 배치라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UN Peacekeeping 2020). 국회의 찬성, 단독 작전이 아닌 집단 안보 내에서의 임무 수행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약 1,700명의 대규모 파병을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위험 지역보다 안전 지역 내 배치를 통해 학교재건, 우물시추, 댐건설 등의 인도적 지원 중심의 작전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독일연방군은 본 파병을 통해 해외 작전 경험,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독일군 내의 공동체 정신 증진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Heintschel von Heinegg and Haltern 1994; Naumann 2006; Kroops 2016 재인용).

대다수의 해외 파병을 수행하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또한 해외 파병시 군의 역할과 동맹국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 및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외 파병시 안전지역 선호, 인도주의적 중심의 파병은 중요 고려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려 사항으로 인해 ‘상징적 기여’라는 외부 여론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과거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의 확장된 정의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갔다.

독일은 해외 파병에 있어 파병의 범위, 참여 형태, 참여 불가 사항

등 여섯 가지의 참여 원칙을 세우고 있다.⁵⁾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군사통합 과정의 주요 내용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연방군 창설, 인권 탄압에 가담한 병사에 대한 즉각적 전역 등이 해외파병의 주요 원칙인 인도주의적 지원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국제 사회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과거 전범국이라는 기억은 일반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자국의 군사력을 해외에서 사용하는데 중요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는 통일 이후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행동한다는 담론이 지속적인 국제 평화유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제 안보 문제에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게 됐다(Koops 2016).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말리 주둔 평화유지군(MINUSMA,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Mali) 임무 참여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MINUSMA 참여는 평화유지군 임무를 통해 독일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MINUSMA 임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Gao town 지역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위험 지역이다. 그리고 기존의 적은 수의 파병만을 고집하고 있던 독일 의회에서 최대 650명까지의 병력 파병을 승인하면서 2020년 8월 현재 369명의 군 병력이 파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새로운 힘, 새로운 책임’이라는 담론 아래 독일은 말리에서 2016년부터 정찰, 정보수집,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Kroops 2016; UN

5) 여섯 가지 참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파병이 이뤄져야 하며, 둘째, 단독 참여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공동 참여 또는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성공 전망이 있을 경우에 파병을 하고, 파병기간은 파병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넷째, 전쟁의 위험이 클수록 (독일군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참여가 더 독려되며, 다섯째, 모든 파병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참여로 외교적 측면 등에서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Kinkel 1994).

Peacekeeping 2020), 파병이후 독일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Gao twon 지역 내 민간인 사망자 감소라는 긍정적 결과 또한 가져왔다.

V. 결론

전 세계의 국가간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감소한 반면 내전과 테러 등의 비국가간 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내전과 분쟁이후 국가 안정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요청하는 국가는 매년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평화유지군의 참여 현황을 보면 강대국들은 평화유지군 파병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사하라이남 국가 또는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Hille 2020). 그리고 강대국들의 평화유지군 활동의 기피, 평화유지군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와 민간인 보호 요청 거부들은 평화유지군의 존폐 논의 및 파병국들의 이미지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평화유지 임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대상 성폭력, 민간인 사망자 수 증가 등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 현상은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분쟁 및 내전 이후 평화협정 등에 의해 군사통합으로 군이 재편된 국가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에서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가 두드러지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군의 역할은 과거와 같이 세계 체제 내에서 파워 게임의 행위자 중 하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행위자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평화수호자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평화유지임무는 늘어난 반면 이에 필요한 평화유지군은 2015년 이후 약 2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Hille 2020). 그리고 현재 약 9만 명에 달하는 평화유지군의 대다수는 강대국이 아닌 사하라 이남의 국

가들 또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대다수가 내전 및 분쟁을 경험했으며, 분쟁과 내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군사통합이 발생했다는 특징을 가진다.

군사통합은 일반적으로 분쟁이나 내전 이후 서로 다른 세력이 평화 협정을 위한 권력 공유의 한 분야로 나타난다. 군사통합은 분쟁이나 내전 종식 이후 무력적 충돌 없이 국가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통합에 비해 비용적 측면이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권력 공유의 과정보다는 ‘평화’라는 결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흡수 통합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 이후 통합 이전의 지위를 인정해주거나 과거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현대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문제는 늘 상존하고 있는 사안이며, 이로 인해 시행되어야 하는 군사통합이나 이념 통합은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배안석 2007).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군사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위인정의 문제 및 과거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 등의 사안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군사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군사통합이 이뤄진 많은 수의 국가가 파병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군사통합의 형태를 통해서 군사통합이 이뤄진 국가의 군대 또한 현시대에서 평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일은 군사통합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의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었다. 첫째, 군사 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 서독군으로 흡수되는 동독군들이 저항 없이 민주 시민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념갈등을 완화 시켰다. 둘째, 교차배치정책을 통해 군사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신 및 정치적 성향의 격차를 줄였다. 셋째, 동독시절 인도주의나 법치주의에 어긋난 행위를 했거나 인권 탄압에 가담을 한 사

람, 또는 국가보위부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

본 논문은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통해 과거사 및 과거 범죄에 대한 정확한 처리, 통합 이후의 이념교육, 상호간의 원활한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차배치정책 등이 통합된 군의 정체성 및 향후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군사통합을 시행한 국가일수록 평화유지군활동 및 연합군 파병 등의 국외활동에서 문제적 소지 없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인다.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는 평화와 신뢰를 전제로 하는 사례임과 동시에 군사통합을 이룬 국가의 군대가 국외 활동에서 성공적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 이후 군사통합을 위해서도 선행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시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외부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인식을 주입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변화되는 군의 형태에 맞춰 국제 평화 질서를 지향하는 군의 모습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향후 한반도의 통일 및 통일 방향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군의 역할과 방향성은 세계화가 고착화된 상황 하에서 고립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가 설립되지 않는 이상 국제 평화 질서의 행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향후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군사통합이 필요할 경우 독일이 채택했던 교차배치 정책, 지속적인 정신 및 이념 교육, 인권탄압 등에 가담했던 인력의 우선적 배제 사항 등은 중요하게 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통합은 변화되는 군의 역할 속에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군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참고문헌>

강지연. 2019. “평화유지군은 왜 민간인 보호 임무에 실패하는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지연·최현진. 2017. “평화유지군 성범죄의 결정요인분석.” 『사회과학연구』 43권 3호, 299-322.

곽은경. 2018. “군정체성 형성을 통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국방연구』 61권 제2호, 107-134

김법현. 2017. “분단국 군사통합 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독일 사례 분석과 한반도 적용방향.” 『한국군사학논집』 73권 1호, 95-120

박용한. 2017. “남북한 군사통합과 정훈교육의 함의: 독일과 이라크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전략연구』 50권, 173-214

배안석. 2007. “군사통합 이전의 동독군.” 『독일학연구』 23권, 79-99.

송병록. 2007. “통독시 독일의 군사적 통합이 통일한국에 주는 함의.” 『정치정보연구』 10권 1호, 69-88.

유명기. 1996. “독일 군사통합의 분석과 한반도 군사통합 방안.” 『국방대학교연구논문』

이명환. 2010. “독일의 통일과 군대통합.” 『한국독일 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9-151

이승철. 2013. “통일 독일의 군 통합 전략 연구.” 『군사연구』 136권, 65-92.

주독대사관. 1992.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통일부. 2013. 『독일통일 총서 1: 군사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형성우·이승철·이영근. 2015. “바람직한 군사통합방안 사례분석 및 교훈 연구.” 『군사』 97권, 309-347.

Ban Ki-moon. 2015. “Secretary-general’s remarks to security council consultations on the situ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Statement.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15-08-13/secretary-generals-remarks-security-council-consultations-situation>

Bell, Christine., Sam Gluckstein and Robert Forster, and Jan Pospisil. 2018. “Military Power-Sharing and Inclusion in Peace Processes.” *PA-X REPORT: POWER SHARING Series*, 1-63.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2000. “Armee der Einheit 1990-2000,” 1-48.

Bussmann, Margit. 2019. “Military Integration, Demobilization, and the Recurrence of Civil War.” *Journal of Intervention and Statebuilding* Vol.13, no.1, 95-111.

- Carvalho, Alexandre de Sousa. 2016. "Power-sharing: concepts, debates and gaps." *JANUS.NET e-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7, no.1, 19-32.
- Gates, Scott., Benjamin A.T. Graham, Yonatan Lupu, Håvard Strand, Kaare W.Strøm. 2016. "Power Sharing, Protection, and Peace." *The Journal of Politics* Vol.78, no.2, 512-526.
- Hartzell, Caroline A. 2014. "Mixed Motives? Explaining the Decision to Integrate Militaries at Civil War's End," in Roy Licklider, ed., *New Armies from Old: Merging Competing Military Forces after Civil War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4), 13.
- Hartzell, Caroline A., and Matthew Hoddie. 2003. "Institutionalizing Peace: Power Sharing and Post-Civil War Conflict Manag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7. no.2, 318-32.
- Heintschel von Heinegg, W., and U.R. Haltern. 1994.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12 July 1994 in Re Deployment of the German Armed Forces 'Out of Area'."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41, no.3, 285-311.
- Hille, Peter. 2020. "UN peacekeepers: Numbers are going down." DW. (28.May).
- Jakobsen, Peter Viggo. 2013. "Germany Won't Fight for International Security, Carnegie Europe." Carnegie Europe. (September 12).
- Jarstad, A.K., and Nilsson, D., 2008. "From Words to Deeds: The Implementation of Power-Sharing Pacts in Pea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25, no.3, 206-223.
- Kamais, Cosmas Ekwom. 2019. "Military Integration of Armed Groups as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in Africa: Good Strategy or Bad Compromise?" *Open Access Library Journal* Vol.16, 1-16.
- Kinkel, Klaus. 1994. "Peacekeeping Missions: Germany Can Now Play Its Part." *NATO Review* 42, no.5, 3-7.
- Krebs, Ronald R. and Roy Licklider. 2015. "United They Fall: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t Promote Military Integration after Civil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3(Winter/16), 93-138.
- Kroops, Joachim A. 2016. "Germany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he cautiously evolving contributor."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2, no.5, 652-680.

- Lijphart, Arend. 2002. "The Wave of Power Sharing Democracy." Andrew Reynolds. *The Architecture of Democracy: Institutional Design, Conflict Management, and Democracy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7-54.
- Lijphart, Arend. 2008. *Thinking about democracy: power sharing and majority rule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 Mattes, Michaela, and Burcu Savun. 2009. "Fostering Peace after Civil War: Commitment Problems and Agreement Desig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53, no.3, 737-59.
- Naumann, Klaus. 2006. "Der Wandel des Einsatzes: Von Katastrophenhilfe und NATO Manover zur Anwendung von Waffengewalt und Friedens erzwingung." *Militaire Specto* 175, no.3, 130-140.
- Pettersson, Therese & Magnus Öberg. 2020 "Organized violence, 1989-2019."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7, no.4, 597-613.
- Prendergast, John and David Smock. 1999. "Post genocidal Reconciliation: Building Peace in Rwanda and Burundi."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1-15.
- Schönbohm, Jörg. 1992. *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Berlin, 1992), 31-32.
- Warner, Lesley Anne. 2018. "The Role of Military Integration in War-to-Peace Transitions: The Case of South Sudan (2006-2013)." *King's College London*, 1-248.
- Wucherpfenning, Julian. 2013. "The Strategic Logic of Power-Sharing after Civil War." *Paper presented at the Powersharing workshop in Lucerne, Switzerland*, May 1-3.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http://ucdp.uu.se/>(검색일: 2020/09/08).

UN Conduct and Discipline Unit. <https://cdu.unlb.org/>(검색일: 2020/09/11).

UN Peacekeeping. <http://www.un.org/en/peacekeeping/>(검색일: 2020/09/12).

투고일 : 2020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7일
--

* 강지연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평화유지군은 왜 민간인 보호에 실패하는가?", "평화유지군 성범죄의 결정요인분석"이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ilitary integration for effective overseas dispatch mission :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 military integration

JiYoun Kang
(Hansei University)

As the form of war changed after World War II, the role of the military was also changing as an actor to protect the people in peacetime and to protect world peace. Representatively, the peacekeepers are dispatched to the areas where the conflict and civil war in each region of the world has ended as a protector of peace, and perform the mission to protect civilians. However, the image of the peacekeepers as peacekeepers has been reevaluated due to the recent failure of the mission to protect civilians in the mission area. In particular, among the countries that dispatched peacekeepers, the more the countries that experienced military integration after civil war and conflict, the more prominently failed the mission to protect civilians at the mission. However, through the case of unified Germany's military integr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ewly formed army through military integration could also successfully perform missions and establish a positive image when dispatched overseas. Therefore, this paper saw that ideological conflict mitigation, cross-deploy policy, and the preclusion of war criminals and human rights abus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military integration.

Keywords : Military Integration, Peacekeeper, German Unification, Ideology Education, War Criminals